

설교제목: “어호와 의 계획”

설교본문: 시편 33편 11절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사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특히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 교제하려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서로 주고받으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먼저 말이 통해야 하며, 관심이 통해야 하며, 일이나 능력, 지혜나 문화 등 기타 무언가 함께 서로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세대 간의 불통이란 말을 서로들 절감하고 있다.

같은 말을 써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갈수록 세대 간에 벽을 두껍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다는 말씀은 곧 처음부터 완전하시며 부족함 없이 충만하시다는 말씀이다. 무엇을 채우거나 보탬 필요가 없으시다. 그 자체로 완성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 세상을 따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변화는 부족한 쪽에서 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쪽에서 하는 것이다.

늘 변화하며 또 변화가 필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롭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갖기를 원하시지만 그 변화란 모든 것의 완성이시며 충만하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기까지의 성숙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변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변질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제멋대로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곧 하나님과 불통이며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이다.

결국 망하는 일이며, 버려지는 일이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 교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계속 번질 되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탈 되면 심판 받아 사망의 권세에 삼키게 되는 버려진 존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세상 곧 이 땅은 사람의 뜻이 주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짜는 사람들 배후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며 주장하고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닫고 경고를 받으며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

에베소서

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배후의 일들을 잘 모른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삶의 배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 자체를 우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낙오자로만 여기려고 한다.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를 못 본다. 그렇게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의 마음의 고백을 듣게 된다.

겸손과 진실과 거룩한 마음, 사랑과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며 주장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오염된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씻고 씻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상태가 되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며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말씀은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말씀이며, 내 진정한 영혼을 살리며 강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도 시편의 많은 말씀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도 사용하셨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답을 시편 33편 마지막 절에서 찾는다.

33:18 여호와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33: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33: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33: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33: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사는 것임을 믿자.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